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3월 무역적자, 기록적 수준...1,405억 달러
- WSJ: 연준, 불확실한 관세로 어려운 선택 직면

[무역 전쟁]

- CNBC: 트럼프 관세 조치, 거의 모든 수출품에 타격
- WSJ: EU 관세 관리: “광범위한 관세로 미국 세수 1,0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어”
- Bloomberg: 시진핑, 유럽에 “미국의 일방주의에 공동 대응하자” 촉구

[오일]

- WSJ: 오일 선물, OPEC+ 주도의 매도세에서 회복세 보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애플,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피하기 어려워
- Bloomberg: 에어버스, "미국 협상 실패 시 유럽의 보잉 관세 지지"
- Bloomberg: 메리어트, 무역 전쟁으로 여행 불확실성 커지며 전망 하향
- CNNBUSINESS: 포드, "관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큰 인상 없을 것"

[보고서]

- National Journal: Inside Trump's first 100 days (영어 원문)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Trade Deficit Widens to a Record \$140.5 Billion

3월 무역적자, 기록적 수준...1,405억 달러

-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 전에 외국산 물품을 대거 들여오면서,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연방 상무부가 화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, 3월 수입은 4.4% 증가한 4,190억 달러에 달했다. 수출은 소폭 증가해 2,785억 달러를 기록했다.
-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14% 증가한 1,405억 달러를 나타냈다.

WSJ 기사

WSJ: Fed Confronts Lose-Lose Scenario Amid Haphazard Tariff Rollout

연준, 불확실한 관세로 어려운 선택 직면

- 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는 오늘(화요일)부터 이틀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.
- 파월 의장과 연준 관계자들은 현재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선불리 완화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.

-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관리할지, 아니면 금리를 인하해 경기 둔화에 대응할지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이다.
- 파월 의장은 지난달 “우리는 매우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성급히 금리를 인하할 경우, 관세 조치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기적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.

WSJ 기사

[무역 전쟁]

CNBC: Trump trade tariffs slump widens to ‘nearly all U.S. exports,’ supply chain data shows

트럼프 관세 조치, 거의 모든 수출품에 타격

-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외 수출 감소는 대부분의 항구에서 나타났으며, 거의 모든 수출품에 영향을 미쳤다. 이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 여파로 분석된다. 특히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.
- 한편,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면서 미국의 수입도 크게 줄고 있다. 지난달 4월 28일까지 한 주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주 대비 43% 감소했다.
-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은 지난 2020년 여름 팬데믹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.

CNBC 기사

WSJ: U.S. Could Collect More Than \$100 Billion With Broader Tariffs, EU Trade Official Says

EU 관세 관리: “광범위한 관세로 미국 세수 1,0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어”

- 유럽연합(EU) 통상담당 집행위원 Maros Sefcovic는 미국이 의약품과 반도체 등 다양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, 1,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 그는 “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기 수 없으며, 유럽연합이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”라고 강조했다.
- 현재 미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구리, 목재, 의약품 등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.
-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국제 무역 규범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, 관세 여파로 인해 제3국의 수출품이 미국을 피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Xi Urges EU to Join Forces Against Unilateralism in Swipe at US

시진핑, 유럽에 “미국의 일방주의에 공동 대응하자” 촉구

- 시진핑은 중국과 유럽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(EU) 지도자들에게 트럼프의 글로벌 질서 교란 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,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중국과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.
- 그는 중국과 EU가 1) 상호 간의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고, 2)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, 3)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,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체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.
- 그는 양측이 다자주의를 지지하고,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며, 일방주의적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[오일]

WSJ: Oil Futures Rebound From OPEC-Induced Selloff **오일 선물, OPEC+ 주도의 매도세에서 회복세 보여**

- OPEC+가 오는 6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41만1,000배럴 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어제 유가가 하락했으나, 오늘 원유 선물 가격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.
- 시장 조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(Capital Economics)는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이 기존 전망치인 배럴당 70달러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, 내년 말에는 60달러에서 50달러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. 이 회사 관계자는 "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향후 수년간 예상보다 원유 공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"고 밝혔다.
-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(WTI)는 2.5% 상승한 배럴당 58.57달러, 브렌트유는 2.4% 오른 61.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Apple Won't Be Able to Avoid Price Hikes for Long **애플,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피하기 어려워**

- 애플은 6월로 끝나는 회계 3분기에 관세로 인해 약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팀 쿡 CEO는 이 비용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상쇄되지만, 이후 분기에는 관세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.
- 애플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다변화하며 관세 영향을 완화하려 하지만, 중국 제조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- 장기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을 인상해 관세 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.
-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미 1,000달러를 넘는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, 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Airbus Backs European Tariffs on Boeing If Talks With US Fail

에어버스, "미국 협상 실패 시 유럽의 보잉 관세 지지"

- 에어버스 CEO Guillaume Faury는 미국의 최근 관세로 항공 산업이 타격을 받자, 협상이 실패할 경우 유럽이 보잉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.
- 그는 1979년 WTO 민간 항공기 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됐던 항공 산업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미국은 EU 등 주요국 수입품에 10% 관세를 부과하며 에어버스에 비용 부담을 안겼지만, 유럽은 아직 보잉에 대한 보복 관세를 유보하고 있다.
- EU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제품에 약 1,13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.
- Faury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항공 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Marriott Lowers Guidance as Trade Wars Add Uncertainty to Travel

메리어트, 무역 전쟁으로 여행 불확실성 커지며 전망 하향

-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무역 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 객실당 수익 성장률 전망을 2~4%에서 1.5~3.5%로 하향 조정했다.
-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인 메리어트는 힐튼, 하얏트, 원덤 등 경쟁사들과 함께 연간 실적 전망을 낮췄지만, 고급 호텔 중심의 포트폴리오 덕분에 타사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.
- 메리어트의 Tony Capuano CEO는 글로벌 포트폴리오, 로열티 프로그램, 자산 경량화 모델의 강점을 강조하며 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.
- 메리어트는 1분기 조정 주당순이익 2.32달러를 기록해 블룸버그가 집계한 평균 예상치 2.24달러를 상회했다.
- 올해 들어 메리어트 주가는 11% 하락하며 미주 호텔 업종 지수와 비슷한 수준의 약세를 보였다.

Bloomberg 기사

CNNBusiness: Ford doesn't expect tariffs to cause significant price hikes for its cars

포드, "관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큰 인상 없을 것"

- 포드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로 인해 올해 15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,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은 1~1.5%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.
- 포드 CFO Sherry House는 관세로 인해 2025년 하반기 자동차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으며, 구매 인센티브 축소나 가을 신모델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.
- 포드는 미국 판매 차량의 80% 이상을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 제너럴 모터스(GM)보다 관세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-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포드는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했으며, 업계 전반의 자동차 판매가 하반기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.
- 포드 CEO Jim Farley는 7월 4일까지 직원 할인 프로그램을 연장했지만,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약속하지 못했다.

CNN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National Journal: Inside Trump's first 100 days 트럼프의 첫 100일 조치와 향후 정책 방향

- 이 영문은 트럼프의 첫 100일 동안의 조치들이 항목별로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니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National Journal

美재무 "美에 투자하기 나쁜때 아냐...정부적자 매년 1%씩 감축" 밀컨컨퍼런스서 연설·대담..."美정부 신용위험 없애면 국채금리 내릴 것" 관세 협상 관련 "일부 합의 가까워져...이번주중 타결 가능"

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5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거듭 자신하면서 "미국 경제가 강하다"고 강조했다.

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에서 열린 '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5'에서 "트럼프 경제 의제는 각 부분의 합계 그 이상"이라며 "무역, 감세, 규제 완화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정책일 수 있지만,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의 본거지로써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"고 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